

## 3~4세기 한성 백제 차 즐겼다

한신대 권오영교수 주장

백제가 한성(漢城)에 도읍하던 시기인 3~4세기 무렵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미 차(茶)를 즐기고 있었다는 과학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반도 차문화 도입을 막연히 불교의 차문화와 연결시키던 견해보다 구체적이며, 더구나 고고학 발굴을 통해 드러난 중국제 도자기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신대 국사학과 권오영 교수는 8일 서울에서 열린 '동남토성 내 백제왕경 유적 발견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제출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 글에서 "지금까지 백제유적에서 발굴된 중국제 수입 도자기는 100점 이상을 헤아린다"면서 "이 중 일부는 다기(茶器)가 분명하며, 그런 다기용 도자기는 이미 3~4세기 단계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 무렵에 차 문화가 도입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중국 도자기는 백제문화권에서 막대한 양이 출토되었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신기한 외래문화'를 백제인들이 선호한 증거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적자 기업 파업해야 하나

금호타이어·기아차 등 어김없는 夏鬪...지역민들 자제 촉구

광주·전남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루(夏鬪)'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산벌노조에 편입된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현대삼호중공업 등 굵직한 사업장들이 상급단체의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등에 찬물을 끼얹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내 각 기업체 노사 대부분은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경우 지난 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8~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 사측을 긴장케 하고 있다. 노조는 오

는 14~15일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사는 ▲임금 9% 인상 ▲2006년도 추가상과급 지급 ▲2007년도 성과 배분 ▲총고용 유지 등 4대 쟁점사안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9차례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근 5년간 67.7% 오른 반면,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을 해 올 1.4분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46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호노조가 지난 4월 25일 한미 FTA 비준저지를 위해 오는 25~

29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막대한 조업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광주공장의 찬반투표가 부결되더라도 금호노조 투표결과가 가결되면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차파업'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23일 동안 파업으로 생산차질대 수 1만5천대에, 손실액이 2천300억원에 달했다.

기아차 협력업체인 하남산단내 A사 대표는 "시민들이 기아차 사주기를 운동하는 상황에서 올해까지 17년 연속 파업한다는 게 말이 되나"면서 "기아차 노조가 상급단체와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나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단계를 거듭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 캐리어 광주공장 노조도 에어컨 제조업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밖에 협력업체 처우개선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선 현대삼호중공업이나 산벌노조 전환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여수산단단지 입주기업 등도 하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배부른 대기업 노조들이 고구야, 환을 하라, 제조업 해외탈출 등에 따른 회사측의 위기를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 넌더리나는 파업을 그만두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송산유원지 피서 인파

10일 광주·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화순 30.4, 구례30.2, 광주28.8도를 기록하는 등 한낮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재검토 파문

감사원 "경제성 낮다" 통보...서남권개발 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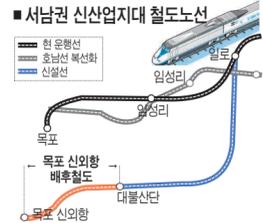
목포 신외항과 대불공단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다'며 재검토 통보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는 전남 서남권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SOC)로 전남도가 수 차례에 걸쳐 중앙 정부에 조기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06

년 착공에 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거점 항만 운영 및 확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지난 2003년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이 예상되는 타당성 시나리오 4개 가운데 1개만이 편



익 대 비용비율(B/C)이 1 이상이었을 뿐 나머지 3개는 1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시 B/C가 1보다 커야 경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과 목포 신외항을 잇는 배후 철도 건설을 전남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려는 전남도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또 현재의 수요와 물동량만을 고려한 단순한 예비타당성 결과만으로는 주요 SOC 사업을 중단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정면 배치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오는 2011년까지 모두 1천 241억 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인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에는 지난 2005년 12억원, 2006년 사업비 45억원 등 이미 57억원이 투입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수구세력 이기려고 지역주의 부활 안돼”

노대통령 6·10항쟁 기념사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수구세력에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기회주의를 용납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수구세력)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

고 나와 지난날 독재개발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기록된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CATS  
‘캣츠’ 티켓 발매중!!  
2007.9.7-16/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33-0766

제14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오늘 오후 1시 개막...18일까지 무등경기장야구장 ▶22면

IOPE  
이나영의 멜라닌 지수 127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오는 멜라닌 고집을 꺾다

끈질긴 멜라닌 흔적에  
아이오펜 화이트젠 RXC 인텐시브 에센스

끈질기게 올라오는 기미·잡티, 멜라닌의 방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기미, 잡티는 불필요하게 과다 생성된 멜라닌이 층층이 쌓여있는 상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멜라닌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큰 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겉에서 지워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므로 피부 속을 바꿔주는 딥웨이팅이 중요하다.

멜라닌 요오현상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화이트젠RXC 처방  
보다 근원적인 화이트닝을 위해 아이오펜가 새롭게 개발한 화이트젠RXC 처방은 피부 본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미백 효능 성분을 캡슐에 담아 피부 속 깊숙한 멜라닌까지 신속하게 전달, 멜라닌의 과다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것. 강력한 햇빛에서도 하얗고 생기는 빛을 유지하는 꽃다지 씨앗 추출물은 식물성분으로서 맑고 흰 효과를 도와준다. 동시에 강화된 수분 공급력은 착색함을 밀어내고 투명함과 화사함을 채워준다.

\*멜라닌 지수(Melanin Index)란?  
백사마티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 멜라닌 정도를 측정할 수지. 낮을수록 하얀피부를 뜻함.

멜라닌 지수 정말 낮아질까?  
그녀들의 화이트닝 도전기를 확인하세요!  
지금 12명의 도전기가 끝난 멜라닌 지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펜 피부과학 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젠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www.iope.co.kr